

전주의 큰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2024년 한해 전주시는 도시 발전을 가로막아온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고, 더 큰 전주를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왔다. 그 결과 그동안 준비한 대변혁의 청사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으며, 지방시대 3대 특구와 3,957억 규모의 노후거점단 경쟁력강화지구 선정 등 지역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해 미래 세대의 꿈을 키우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동시에 장기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내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힘써왔다.

▲ 해묵은 난제 해결로, 100만 광역도시 기반 마련

대표적으로 지난 10여년 동안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겨졌던 전주종합경기장과 옛 대한방직 부지가 드디어 새로운 전주의 랜드마크로 재탄생할 준비를 마쳤다.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전시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아 최종 관문을 넘어서었으며, 지난 11월 본격적인 철거공사에 돌입해 내년도 상반기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앞두고 있다.

서부신시가지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도 민간 사업자가 제출한 개발계획안에 대해 오랜 협상 과정을 거쳐 지난 12월 초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해 전주시의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도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던 규제를 개선하는 데에도 힘을 들였다. 구체적으로, 시는 팔복동 공업지구 내 규제를 완화해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했으며, 공원 주변 건축물의 고도 제한을 폐지해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과 함께 총 13차례 걸쳐 28개의 상생협력사업을 발굴하며 광역도시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왔으며, 적극적인 국가예산 활용으로 2조 1,585억원 규모의 재정을 확보하며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갈 동력을 갖추기도 했다.

여기에 시는 10년 넘게 폐교로 방치되던 금암고 일원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던 공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디지털 시스템을 갖춘 청년안전상황실을 구축함으로써 각종 재난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 강한 경제를 위한 혁신동력 마련

동시에 시는 올해 전주가 강한 경제도시 이자 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특히 시는 '노후거점단위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돼 노후화된 팔복동 산업 단지를 디지털·친환경 혁신 공간으로 변화시킬 기회를 얻게 됐으며, 지난 10월에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인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이 문을 열면서 중소기업의 입지 애로를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시는 지난 10월 전주에서 열린 '제22회 세계한인비즈니스 대회'를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국내외의 경제인들에게 전주의 잠재력을 알려왔다.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주희망더드림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 규모 1,700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했다. 지난 6월에는 경영 안정을 보다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전주희망더드림 인심연장 지원사업도 추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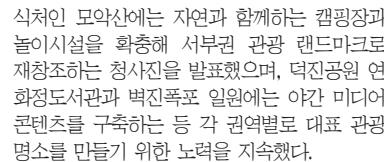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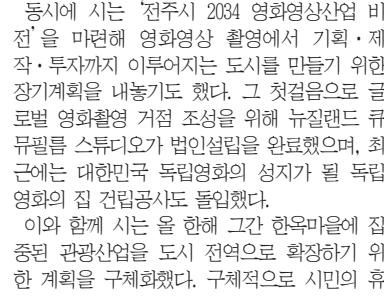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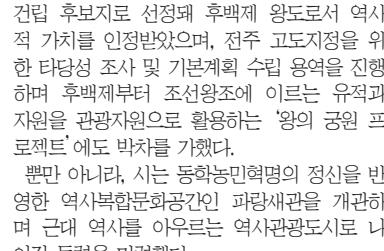
시는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골목상권 드립상권'을 개최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착한업계소 지정 및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베풀목인 소상공인들이 흘들림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돋기도 했다.

여기에 새해 첫날 출시된 전주형 택시호출앱 '전주사랑콜'은 출시 1주년을 앞두고 최근 한 달 기준 일평균 5,500여건의 호출건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한옥마을·만성지구 주차타워 조성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덕진구 장동에는 최근 260여 면의 주차면을 갖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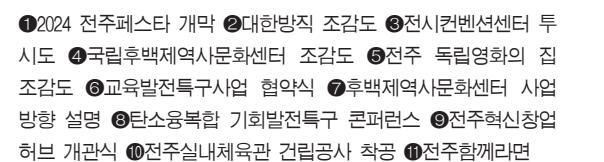
▲ 전주, 국내 대표 역사문화도시로 '우뚝'

시는 또 후백제 왕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서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방대한 유무형 문화자산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입지도 굳건히 했다.

특히 시는 지난 9월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종합경기장·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시화 등
해묵은 난제 해결 힘써… 100만 광역도시 기반 마련
노후거점단 경쟁력 강화사업 공모 선정되는 등
강한 경제·활기찬 일자리 도시로 나아갈 여건 마련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사업 선정·영화영상 비전 등
유무형 문화자산 기반 역사문화도시 입지도 굳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복지안전망 구축에 공들여



① 2024 전주페스타 개막 ② 대한방직 조감도 ③ 전시컨벤션센터 투시도 ④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조감도 ⑤ 전주 독립영화의 집 조감도 ⑥ 교육발전특구사업 협약식 ⑦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사업 방향 설명 ⑧ 탄소융복합 기회발전특구 컨퍼런스 ⑨ 전주혁신창업허브 개관식 ⑩ 전주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착공 ⑪ 전주함께라면

아울러 시는 올해 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착수하며 기존 월드컵경기장에 드론스포츠복합센터와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포함하는 북부권 호남제일문 복합스포츠타운 대표관광지 조성사업에 방점을 찍었다.

이외에도 시는 △이팝나루 명소 팔복동 철길 개방 △미래문화축제 팔복 개최 △5개 주요 축제를 통합한 전주페스타 2024 개최 △중호수 수변팀방로 개통 등 특화 관광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축해 관광도시로 나아갈 기반을 마련했다.

▲ 촘촘해진 복지안전망, 시민 체감도 높였다
앞으로 시는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데도 공을 들여왔다.

올해 신설된 전주형 복지정책으로는 가장 먼저 전주지역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누구나 라면을 기부하고 먹고 갈 수 있는 '전주함께라면' 사업을 시작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전주함께라면은 사회적 고립위험 세대를 발

굴하고, 새로운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개시 이후 각계각층에서 기부행렬이 이어지고 있으며, 고립 위기가구가 자연스럽게 복지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청년이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청년희망단, 청년이음전주를 통한 소통 강화 △전주기업반 △출향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 사업 △청년어학시험 응시료 지원 △취업준비 청년 교통비 지원 △청년임대주택 36호 공급 등을 통해 청년들의 성장과 취업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까지 책임졌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삼천1동을 5번째 치매 안심마을로 추가 지정하고, 만 60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치매 검사비를 지원해 시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여기에 시는 △어르신 병원동행 서비스 기초 연금 수급자 확대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확대·강화를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임신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실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등 다양한 복지혜택 확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으며, 재능봉사로 복지자원의 틀을 만드는 '재봉틀사업'을 통해 미움이 건강한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시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1회용품 없는 날(매월 10일) 지정 및 홍보 캠페인 실시 △1회용품 없는 장례문화 확산 사업 추진 △전주페스타 축제 시 다회용기 사용 △전주그린스테이'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1회용품 줄이기와 탄소중립 실천에도 앞장서왔다.

우밤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전주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도전을 결코 면하지 않았다"면서 "2025년 새해에도 전주시민들의 힘을 믿고, 민생의 어려움을 덜고 전주 대변혁의 기적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